

SES 美 증시 상장... 선제투자 현대車·기아·SK '잭팟'

(솔리드에너지시스템)

아이반호 캐피탈 결합 최종 계약 합병된 회사 주식이 36억 3천만 달러로 전망 국내 리튬메탈 배터리 확보 '청신호'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 솔리드에너지시스템(SES)과 스펙(기업인수목적회사) 아이반호 캐피탈 애퀴지션 로고.

현대자동차·기아·SK그룹이 투자한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 '솔리드에너지 시스템(SES)'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14일 SES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시너지엔솔루션에 따르면 SES는 스펙(기업인수목적회사)인 아이반호 캐피탈 애퀴지션과의 결합을 위한 최종 계약을 마치고,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상장이 성사되면 첫 번째 공개 상장 하이브리드 리튬메탈 배터리 공급업체의 탄생이다. 이번 거래는 SES와 이미 A샘플 제휴개발계약을 체결한 제너럴 모터스(GM), 현대자동차, 기아 등 전

략적 투자자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지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지리자동차그룹, 상하이 자동차 그룹, LG테크놀로지벤처스, 폭스콘과 같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인 아시아의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전지 제조사도 함께 한다.

완료 후 회사의 종목 기호는 'SES'이고, 합병된 회사의 예상 주식이 3억 달러의 인아웃(earn-out·추후 발생할 손익을 매도자와 매수자간 배분하기로 하는 매매가 결정 방식)을 포함해 약 36억 달러(약 4조 1천억 원)에 이를 전망

이다.

예상 총 수익 합계는 4억 7600만 달러(아이반호의 일반 주주가 상환하지 않는다고 가정)다. SES는 거래 종료 시점에 대차대조표 상 예상 거래 수익과 기존 현금을 포함해 6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회사의 미래 성장과 2025년 상용화 단계로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

솔리드에너지는 2012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소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스타트업이다. 리튬이온배터리(LIB)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 높은 리

튬메탈배터리(LMB)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에 두 개의 배터리 시제품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SES의 하이브리드 리튬메탈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의 리튬메탈 양극, 보호 양극 코팅, 특허 받은 고농도 솔벤트-인-솔트 액체 전해질과 인공지능(AI) 안전 기능을 사용해 솔리드 스테이트 리튬메탈 배터리보다 뛰어난 성능과 제조 효율성을 제공한다.

SES의 기존 투자자는 SK, 제너럴모터스(GM), 현대자동차, 기아, 테라섹, 티엔치리움, 벡텍스 벤처스,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상하이자동차그룹 등이다. 솔리드에너지는 지난 3월 GM과 공동 연구계약을 맺었다. 2023년 리튬메탈 배터리 시험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2025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다.

국내에서는 SK가 2018년 솔리드에

너지에 3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지난 5월 4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GM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치차오 후 창업자에 이어 3대주주가 됐다.

현대차 역시 솔리드에너지시스템에 1억 달러(약 1,140억 원) 규모의 기술연구개발협약(JDA) 및 지분 투자 계약을 맺었다. SES는 지난 5월 현대차·기아와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EV)용 'A샘플' 리튬메탈 배터리 개발을 위한 제휴개발계약(JDA)을 체결했다.

SES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치차오 후 박사는 "우리는 GM, 현대차, 기아와 같은 세계적 자동차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가속하고,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리튬메탈 배터리를 공급하는 선도 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SKC 에코라벨 제품, 북미·유럽시장 공략

이스트만과 특허 라이선싱 MOU 양사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강화

SKC가 미국의 이스트만과 협력해 SKC 에코라벨을 중심으로 한 재활용 가능 PET병 포장재 시장 확대에 나선다. 이스트만은 휴대용 고급물병, 의료용 기기, 가전기기 및 화장품 용기, PET병 열수축필름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하는 글로벌 소재회사다.

SKC는 지난 13일 이스트만과 SKC 에코라벨 관련 특허 라이선싱 및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북미, 유럽 지역 대상이며 기간은 20년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PET병 포장재 시장에서 재활용 가능한 SKC 에코라벨 컨셉 제품 채택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SKC 에코라벨은 PET병과 함께 재활용이 가능한 세계 최초 PET병 열수축 포장재다. PET병과 같은 소재에 재활용 공정에서 씻기는 잉크를 적용한 것으로, PET병과 함께 재활용할 수 있다.

폐기해야 했던 다른 소재 라벨과 달리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없고



회상으로 진행된 체결식에 이완재 SKC사장(왼쪽 두 번째)과 브래드 리치 이스트만 부회장(왼쪽 네 번째)이 참석했다.

재활용이 늘어나 친환경적이다.

SKC 에코라벨은 발상의 전환, 탁월한 재활용성을 인정받아 2016년 7월 미국 플라스틱재활용협회 APR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2019년에는 SKC 에코라벨을 적용한 제품이 APR 회원 총회에서 'APR 쇼케이스 어워드'를 수상하며 '올해의 혁신가'로 이름을 올렸다. 시장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SKC와 이스트만은 PET 재활용성 향상을 위해 각각 재활용 가능 포장재 개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사는 이번 SKC 에코라벨 관련 특허 라이

선싱을 통해 재활용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SKC와 이스트만은 양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를 강화해가기로 했다.

SKC 관계자는 "현재 많은 글로벌 고객사가 SKC 에코라벨의 재활용성과 혁신성에 주목하며 적용이 늘고 있는데, SKC 에코라벨 시장이 더 빨리, 더 크게 열리게 됐다"라며 "이스트만과 함께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고, 플라스틱 넷제로를 달성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현대중, 임단협 잠정합의... 파업 일단락

노사 기본급 1만8000원 인상 동의

현대중공업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으로 시작된 노조의 크레인 점거 파업 중단으로 한숨을 돌렸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3년째 끝어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중 2년치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이어진 전면파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도출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이번 합의안이 실제로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기본급을 1만8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동의했다. 기본급 인상분과 호봉승급분(2만3000원), 전환분(1만원)을 포함한 총 기본급 5만1000원이 인상됐다. 여기에 성과급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019년 인상안은 기존 합의안인 기본급 4만6000원 인상, 성과급 218%, 격려금 100%+150만원, 30만원 상당의 복

지포인트가 그대로 합의됐다. 또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던 2년 전 물적분할 반대 투쟁과 관련한 14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는 내용도 담겼다.

6일부터 시작된 전면 파업 이후 노사가 합의안을 내놓은 만큼 노조원 투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사측은 보고 있다. 노조는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올해 2월과 4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모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실제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만약 가결된다면 현대중공업의 임단협은 2년2개월여 만에 타결되는 셈이다.

회사관계자는 "1,2차 조합원 투표 모두 부결됐기 때문에 낙관하긴 어렵다"며 "조합원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수주 물량 급등으로 지난해 수주 물량을 넘어선 만큼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대우조선해양, 7253억 규모 카타르 원유생산설비 수주

올해 수주목표 80% 달성

대우조선해양이 연이어 해양플랜트를 수주하며, 수주 목표 달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카타르 NOC로부터 약 7253억 원 규모의 고정식 원유생산설비를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설비는 카타르 최대 규모 유전 지역인 알샤한 필드의 원유 생산량 증산을 위한 것이다.

이 설비는 상부구조물, 하부구조물,

다른 설비와의 연결 다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3년 하반기까지 건조가 완료돼 카타르 알샤한 필드로 출항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FPSO를 수주한 데 이어 한달만에 또다시 해양설비를 수주했다. 한해에 복수의 해양설비 수주에 성공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8년만의 쾌거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연이어 해양플랜트를 수주하며,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건조경험과 기술력을 완벽하게 인정 받았다"며 "선주의 깊은 신뢰에 화답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설비를 건조해 적기에 인도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컨테이너선 16척, 초대형원유운반선 11척, 초대형 LPG운반선 9척, LNG운반선 1척, WTIV 1척, 해양플랜트 2기 등 총 40척/기 약 61.3억 달러 상당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를 수주해 올해 목표 77억 달러의 약 80%를 달성했다.

/양성운 기자

한국타이어, '키너지 AS ev' 美 대륙 횡단

(전기차 전용 타이어)

폴크스바겐 ID.4 美 투어 차량에 장착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미대륙 횡단을 통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기술력을 입증한다.

한국타이어는 자사 전기차 전용 타이어 '키너지 AS ev'가 폴크스바겐의 'ID.4 미국 투어' 프로젝트 차량에 장착된다고 14일 밝혔다.

ID.4 미국 투어는 폴크스바겐이 새로운 전기차 모델 'ID.4'로 약 5만 7000km에 달하는 미대륙을 횡단하며 미국 내 주행 네트워크를 점검하는 프로젝트다. 7월 13일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버지니아 주를 시작으로 미국 48개 주를 횡단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 '키너지 AS ev'가 장착된 폴크스바겐 ID.4 프로젝트 차량.

이번 프로젝트에서 ID.4에 장착되는 키너지 AS ev는 한국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전기차 주행에 최적화된 초저소음 환경 구현은 물론 최상의 주행성능과, 편안한 승차감 등을 갖춘 하이테크 기술력을 집약한 상품이다.

/양성운 기자